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 1 장 1 절-9 절

2015 년 11 월 15 일

어떻게 합니까? 큰 도전 앞에서? 움추려 듭니까? 대쉬해 나갑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전진해 나가라”고 합니다.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장벽이 앞에 있습니까?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거인들하고 싸워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 싸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을 치고 들어가는 모습. 거주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성경 이야기들이, 믿는 자들을, 종교인들을 사납게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 나가자. 쳐부슈자. 죽이자.”

프랑스에서의 일어난 이슬람 극렬분자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서, 참 슬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행동이 옳바르다고 믿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했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극렬하고 난폭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을 휘두리는 하나님이십니까? 계속 함께 기다려봅시다. 수궁할 만한 답을 기다려 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따르면 사는 우리들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폭력과 싸움 그리고 전쟁에, 가장 맘 아파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잘 살라고 천지 창조했는데, 평화가 깃들고 사랑이 넘치면 좋겠다 하시는데. 서로 존중, 서로 이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살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최고다. 내 중심의 삶이, 넘어야 할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종교, 내 문화, 내 전통, 내 지식.. 내것이 최고이고, 남의 것은 최고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땅입니다.

세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말씀 순종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지 말고..” 아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이야기에 보며는, 싸움에 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읽었습니다. (8:34) And afterward he read all the words of the law, blessings and curses,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35 There was not a word of all that Moses commanded that Joshua did not read before all the assembly of Israel, and the women, and the little ones, and the aliens who resided among them.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4: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떡 있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만 먹고 사는 생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히브리 4:12

말씀은 한 마디로, 우리를 온전케하며, 갖추게 하고, 변화 시켜주십니다. 내 중심의 생각과 삶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음식을 먹듯이,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 어떤 분은 밤에 드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하셔서,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드시기 전에, 먼저 감사드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세요. 주시는 지혜, 교훈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그 날 주신 말씀을 따라, 하루를 온전히 엮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자기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삶입니다.

요즘 너무 기쁩니다. 전체 교회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학생 입교반 아이들과도 성경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번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없이는 갈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전쟁터에 나아가는 데, 기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해라. 내가 함께 하리라.

언약궤가 먼저 앞장 서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앞장 서셨을 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먼저 앞세워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합니다. Let God move in front.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단단한 “자기 중심”이라는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테에제 기도 모임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신앙 공동체의 운동입니다. 내 안에 가득차 있는 내 중심의 소리를 내어던지고, 주님의 평화와 진리, 그리고 사랑의 소리로 채우자는 운동입니다.

아름다운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나를 숨쉬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생명으로 채우시어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처럼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숨이여, 나를 숨쉬게 하소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까지, 주님의 마음과 하나되어 행동하고 견딜 때까지. 하나님의 숨이여, 나를 숨쉬게 하소서, 내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며, 나의 속된 것이 당신의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숨이여, 나를 숨쉬게 하소서. 그래서 죽지않고 당신과 함께, 영생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쉬는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채움을 받으면, 나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되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힘차게 동참하셨습니다. 귀한 일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이셨습니다. 침묵 기도를 즐겨하셨는데, 하루는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침묵 기도 하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잠시 후에, 기자가 다시 묻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테레사 수녀의 답이, “하나님께서도 들으시지.”

주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공포하는 겁니다.

요즈음,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해, 이 다짐을 하고 공포를 합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니라.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있는거지요.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해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매일.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귀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에 보며는, 주님 말씀이,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데 많이 쓰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에 많이 사용하면 식도락입니다. 운동하는 데 많이 쓰면, 물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재물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재물 이야기가 나오면, 십일조 이야기 나옵니다. 십일조는 원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도록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의 일조를 가려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내어 놓음으로,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 10 80 방법으로 살라고 제시합니다. 수입의 십일조를 헌금으로 그리고 십일조는 저금하고, 수입의 80 를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거지요. 감리교 운동의 아버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나누라고 하십니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Then "give all you can." 왜들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사는 삶으로 나가자고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네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해방하라는 겁니다.

만약 지구상의 63 억 인구가 100 명 밖에 되지 않는 마을로 축소된다면... 이 조그맣고 다양한 마을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100 명중 52 명은 남자이고 48 명은 여자입니다. 30 명은 아이들이고 70 명은 어른입니다. 90 명은 이성애자이고 10 명은 동성애자입니다. 61 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13 명은 아프리카 사람. 13 명은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 사람. 나머지 1 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 명 중 50 명은 영양실조이고 1 명은 굶어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15 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중 6 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74 명이 39%. 20 명이 겨우 2%만 나눠가졌습니다. 25 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5 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중 17 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거나 잔돈 저금통을 가진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 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 명 중 7 명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가장 큰 방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방해물이고 장애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채우려는 욕망,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만. 이것이 넘어야 할 장애들, 쳐부셔야 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먹고 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그리고 자유함이 넘치는 그 곳에 들어가셔서, 기뻐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매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